

Daily Auto Check

2022. 12. 5 (Mon)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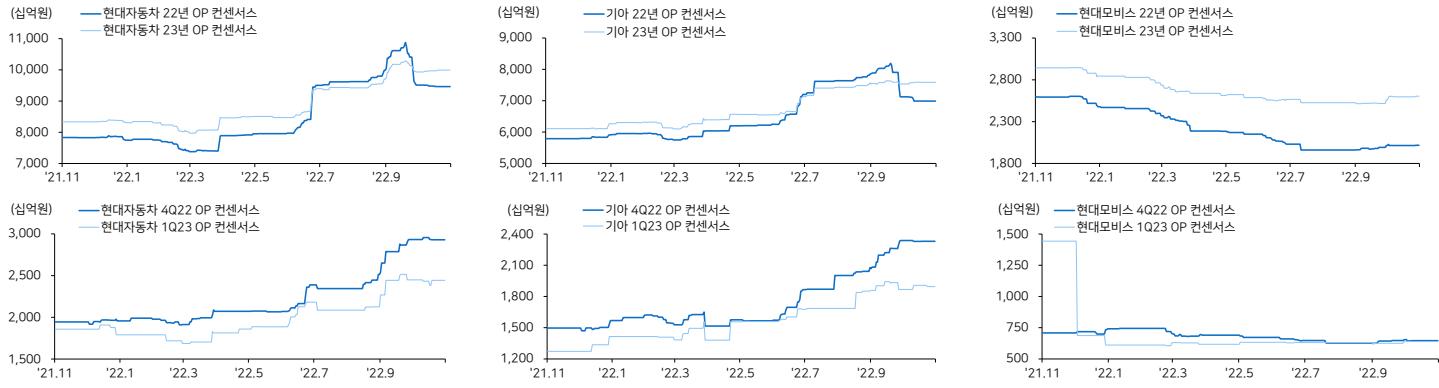
RA 장재혁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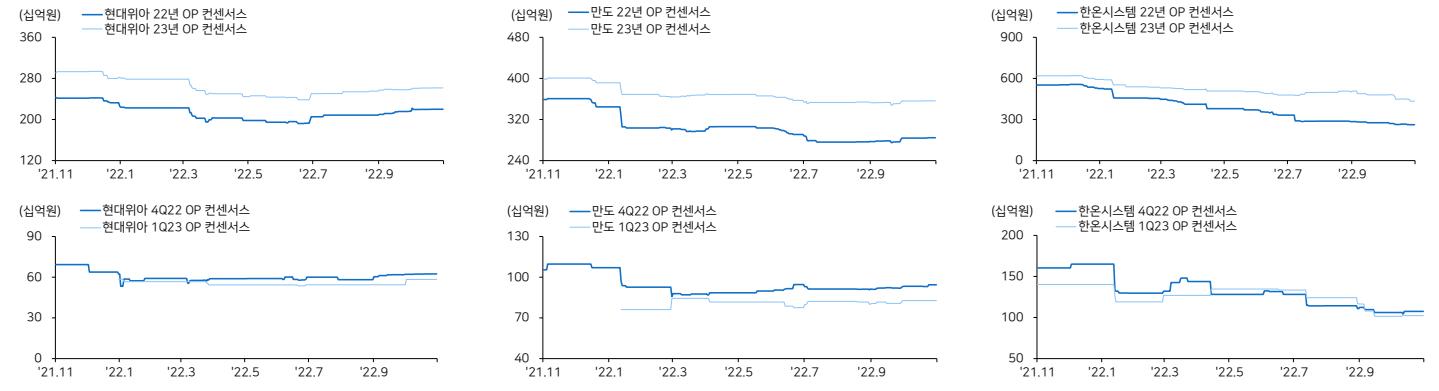
jaehyeok.jang@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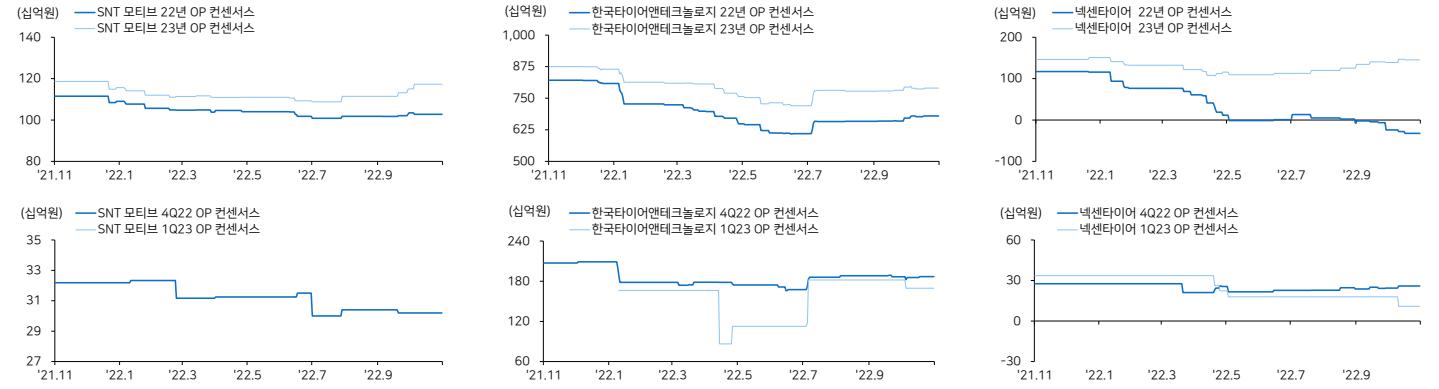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국회 대표단, '한국산 전기차 차별' IRA 논의 차 방미 (뉴스1)

국회 대표단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하는 IRA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4일 미국으로 출국. IRA의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국내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

<https://bit.ly/3VwZ6vy>

LG엔솔, 북미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2위...파나소닉 1위 · CATL 3위 (이데일리)

올해 1~10월 북미 누적 EV 배터리 점유율은 파나소닉이 시장점유율 48%로 1위, LG에너지솔루션은 점유율 18%로 2위를 차지, 파나소닉은 점유율은 7.9%로 4위 수준이지만, 북미에서는 테슬라 판매를 바탕으로 점유율 1위를 기록.

<https://bit.ly/3iCHDTH>

GM, LG joint venture to invest \$275 million in Tennessee battery cell plant (Reuters)

GM과 LG에너지솔루션은 생산량을 40% 이상 늘리기 위해 테네시 합작투자 배터리 공장에 2.7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밝힘. 이번 투자로 생산량은 연간 35GWh에서 50GWh로 증가할 것이며, 2023년 후반 가동이 예상됨.

<https://reut.rs/3P3U1bM>

BYD reportedly developing LiDARs (CNEV Post)

BYD가 라이다 연구 개발과 투자를 늘리는 중. BYD는 중국 경쟁업체 NIO, Xpeng과 다르게 양산모델에 아직 ADAS 기능 향상을 위한 라이다를 장착하지 않은 상황. 향후 핵심부품과 공급망 확보를 위해 라이다 개발 분야에 뛰어든 것으로 해석됨.

<https://bit.ly/3Vug7Gx>

중국 전기차 선두 비야디 11월 판매량 23만대...월간 역대 최다 (연합뉴스)

비야디의 11월 생산량은 23만129대, 판매량은 23만427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3%, 137% 증가. 11월 판매량은 월간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이며, 석 달 연속 월간 판매량 20만대를 돌파.

<https://bit.ly/3Fq0sY>

韓 16강 진출에 현대차 '깜박웃음'... 최소 수십조 원 효과 기대 (동아일보)

월드컵 기간 중 현대차·기아 브랜드는 글로벌 외성차 중 유일하게 광고가 노출되는 업체. 한국이 당초 16강 진출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깨고 토너먼트에 진출하면서 광고 효과가 커졌을 것이란 전망.

<https://bit.ly/3HdF9FF>

Tesla Model 3 prototype spotted ahead of rumored design refresh (electrek)

새로운 Tesla Model 3 내년에 출시될 것이라는 소문에 앞서 캘리포니아에서 포착됨. 모델 3 업그레이드로 일시적인 생산 속도 둘러가 제기되나 이제는 모델 Y 생산이 모델 3를 초과하기 시작했으며 기기캐스팅 추가 도입의 기회라는 해석.

<https://bit.ly/3P1ALeT>

Used-car values expected to hold despite price drops (Automotive News)

JD Power에 따르면 중고차 가격은 하락 중이나, Covid19 이전 수준보다 높은 가치를 최소 2025년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여전히 적정 가치보다 높은 수준이기에 연말과 내년 초까지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예상.

<https://bit.ly/3Uva7fw>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